

민주 “尹, 대장동 숨은 몸통 비호”…부산저축銀 부실수사 공격

“브로커 조우형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등 檢 재수사 촉구 ‘자영업자 50조 투입’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TF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가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를 받는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의 친척인 조 씨는 대장동 사업 투자금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특정 업체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으며 “조 씨가 살아 남아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된 배후에는 윤석열 전 검찰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에 대해 “내부의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 “윤 후보의 이 발언이야말로 망언 수준을 넘어 금융부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

공했다. 이어 “윤 검찰의 직무 유기성 수사,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몰아세웠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내놓은 ‘50조원 투입’ 공약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윤 후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50조원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내놨다”며 “아무도 안 믿는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벼랑 끝 내몰리는 국민께 내년을 기약하지는 건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정책 기본도 안 돼 있는 빈 약속”이라며 “예산결산을 한 번도 안 해본 티가 역력히 나타난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며 “윤 후보는 표를 위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냐”고 일갈했다.

야당의 선대위 출범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선대위’ 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중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회견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전 비대위원장을 쫓아내려는 데 힘을 쏟았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제가 볼 땐 김 메이커보다는 트러블메이커”라며 “후보 위에 있는

상황 노릇 아니면 그분은 하실 일이 없다”고 비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해왔는데 김 전 위원장은 부패 전력자”라며

“부패 척결한다며 부패 전력자가 총괄선대위 전권을 가지면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관 합작사업 민간이익 10% 제한”

조웅천 ‘대장동 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나 선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으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참여자에 게 배분해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의익 상한을 초과하면,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개발 이익환수법 제정 당시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

으로 인하된 상태다. 기존 특례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검토해 감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감면 특례 규정이 많아 특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16일 “현재 공동 발의에 참여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국토위 의사 일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토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과 ‘매듭’만 남은 윤석열 선대위…조만간 회동할 듯

김종인 원톱에 권성동 사무총장 김병준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이르면 17일 총괄선대위원장 발표를 시작으로 세부 인선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가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40분 가량 만나 선대위 인선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둘 사이 ‘교통정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신 권영세·윤상현·김도읍·추경호 의원 등을 선대위 간부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가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등 4개 분야별 총괄본부의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도와 주요 보직 인선안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다음 수순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매듭’이다. 윤 후보가 급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 대표와 잠정 합의한 선대위 인선안을 김 전 위원장에게도 공유하며, 선대 조직에서 ‘원톱’ 역할을 맡아달라고 최종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다른 잡음 없이 선대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남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에게 “계기가 있으면 (윤 후보를) 도와줄 수 있다”며 전과 달리 한결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도 살아있는 카드로 꼽힌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상임선대위원장을 이 대표와 나란히 맡고, 윤 후보에게 큰 틀의 정책 자문을 하는 방안이다. 만일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 투수’ 역할을 했던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이 개인 간의 호불호를 떠나 정권 교체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공정선대위원장은 최대 10여 명이 될 수도 있다”며 “2·3차 인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남국, 김혜경씨 관련 가짜뉴스 제보 479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1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낙산사고와 관련해 ‘가짜뉴스 제보 479건’을 분석해본 결과 조직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건 발생 이후 지난 13일까지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에 장문의 메시지가

빠르게 작성돼 조직적으로 유포됐고, 객관적 증거로 해명했는데도 다시 비틀어서 교묘하게 가짜뉴스를 재확산시켰다”며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의 제보는 수준이 아니라 형식을 정해 시간과 공을 들여 정성껏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봤을 때 어디선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걸 분석해 굉장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몇 건을 골라 오는 17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정철, 대선 구원등판?…총선 후 첫 여의도행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7일 국회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선 행보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양 전 원장의 역할론도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번 여의도행에 계기로 구원등판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전 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의원 모임 측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전 원장의 기초 발제와 의원들과의 자유 토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의원 중 약 40명이 양 전 원장의 권유 등 직·간접적인 관여로 영입·공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양 전 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고는 이튿날

당을 떠난 뒤 여의도와 거리를 뒤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자 양 전 원장의 재등장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그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총선 당시 양 전 원장과 함께 ‘이해찬호’의 총선 전략을 짰던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측에 합류하면서 양 전 원장 역시 이 후보와 교감을 이루고 몰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경선을 마무리하고 선대위가 출범해 대선 이 본격화하는 시점인 만큼, 양 전 원장이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등판 체재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장성 토지(매매 분양)



① 200평 ② 300평 ③ 160평 ④ 160평

⑤ 150평 ⑥ 150평 ⑦ 150평 ⑧ 150평

⑨ 150평

110m (약 203칸) ④ 6m 도로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